

농작물·가축의 적 '폭염'... 피해 대비를

가장 더운 시간대 낮 12~오후 5시에 농작업 중단

햇볕 데임 피해 염려 과수, 가지 유인 앞으로 가려줘야

가금류 사육 농가, 평상시보다 사육밀도 20% 낮춰야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12일 현재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고온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및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했다.

기상청이 지난 8일 발표한 1개월 전망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습도가 높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고,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장마로 인한 많은 비가 내린 뒤 일사량이 급증해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

농작물이 말라죽거나 생리장해가 나타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하면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폭염일수가 31.4일로 가장 길었던 2018년의 경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과수 '햇볕 데임(일소)', 농작물 생육불량 등으로 피해면적이 2만 2,509헥타르에 달했으며, 폐사한 가축은 907만9,000마리로 집계됐다. 폐사한 가축 중 닭·오리 등 가금류가 전체 99%를 차지했다.

농진청은 우선 농업인 안전을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오후 5시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것을 권장했다. 농작업 시 햇볕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 착용과 바람이 잘 통하는 옷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며,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목, 겨드랑이 등에 차가운 물병을 대어 체온을 내려줘야 한다.

사과, 단감 등 햇볕 데임 피해가 염려되는 과수는 과실이 직사광선을 직접 받지 않도록 가지를 유인해 앞으로 가려주고 기온이 높은 한낮에는 미세 살수장치를 가동해 나무에 직접 물을 뿌려주고, 고령지 배추는 호흡과다로 속이 뜰어치지 않는 결구불량이나 갈습결립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물을 줘야 한다.

가금류 사육 농가에서는 평상시보다 사육밀도를 10~20% 정도 낮추고, 신선하고 차가운 물(10~20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또한 밀폐된 축사의 환기시설을 점검하고, 환기팬은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고, 단열재 부착 및 차광막을 설치해 축사의 온도 상승을 막아야 한다. 특히 폭염이 지속되면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축사 시설 내 환풍기 등이 멈추면 가축 폐사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을 위해 정전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김정화 과장은 "폭염특보 발효 시 농업인은 야외 농작업을 중단하고, 축사 농가는 축사 시설 내 통풍 및 온도조절 시설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우수 중기 일자리 청년 매칭 지원

중기부, 올 연말까지 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과 중소기업부(장관 권철승)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수 청년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고용시장 사정에 따라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중소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들 기관의 협력은 지난 5월 체결된 교육부, 고용부, 중기부, 중기중앙회 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인활동 중인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 공고에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를 선별하고, 청년 구직자의 매칭을 지원한다.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는 매달(7월~12월) 구인활동 중인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등 기업들의 채용공고 중 연봉 2,700만원 이상, '정규직', '경력무관'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채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선별한다. 선별된 일자리 및 기업정보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인력 에로센터, 워크넷, 잡코리아에서 별도 전용판과 팝업창 등을 통해 제공된다.

청년 구직자(만 15~34세, 군필자 최대 만 39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인력 에로센터, 워크넷, 잡코리아의 인력풀에 등록해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정보와 희망직무를 고려한 일자리를 추천받거나, 직접 구직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선별된 채용정보를 올린 기업에게는 각 플랫폼 전용판에 채용정보가 무료등록되며, 잡코리아 인제풀 열람권 및 채용공고별 맞춤 인재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후 매달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채용동향 설명회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중소기업 지원 협·단체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중기부 및 고용정보원에서도 기업인력 에로센터 누리집과 워크넷에 전용 채용판을 신설하고, 채용정보 제공 인재·구인기업 추천 등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윤성 기자

NH 전북,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을 시

기업 최대 5억·개인 1억 지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중소기업 및 주민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로 피해범위 내에서 기업은 최대 5억원, 개인은 최대 1억원까지 신규자금이 지원되며 최대 1.0%이내의 (농업인은 최대 1.6%이내) 대출금리 감면과 최장 12개월의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대출이 만기가 된 경우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심사결과·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기가 가능하며, 최장 12개월의 이자 및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자금은 상환일이 도래



했거나 5년 이내 도래할 농업용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피해복구자금, 시설개보수자금 등으로 개인은 최대 20억원, 농업법인은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금리 1.0% 기간 12년(5년까지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장기요 본부장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로 농업인을 비롯한 지역주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해 조속히 자금이 지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망고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

우리 기후에 맞는 '망고 재배법'

농진청, '망고 표준 재배력' 제작·보급

생육 단계별 온실 내부 온도 관리·주요 작업 등 마다

월별 생육단계 사진으로 보여주는 등 농가 이해도 도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기후변화로 열대작물 재배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 재배되는 열대과수 중 첫 번째로 망고 표준 재배력을 제작·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과일 색깔이 빨갛고 풍미가 뛰어난 망고는 열대과일 중 국내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으로, 2017년 42.3헥타르(97농가)에서 2020년 67.6헥타르(181농가)로 3년 새 재배면적이 62% 증가했다. 국내에서 재배한 망고는 뛰어난 맛과 향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그간 시설재배 표준 재배력이 없어 안정적인 생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농진청에서는 망고의 생육 단계별 하우스(온실) 내부 온도 관리, 주요 작업, 병해충 관리, 비료

주는 요령 등 재배 방법 전반을 담은 표준 재배력을 만들었다. 망고 표준 재배력은 망고 재배 농가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월별 생육 단계를 사진으로 보여주고, 생육 단계별 재배 방법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준 재배력에 따르면 망고 시설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꽃눈(화아) 분화기, 개화기, 수확기이다. 화아분화기에는 온실 내부 온도를 10~15도(°C)로 유지하며 5도(°C)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개화기에는 온도를 17~25도(°C)로 유지하고 꿀벌이나 검정벌레 등 해충(꽃가루매개곤충)을 방제해 수분(꽃가루받이)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수확기에는 습도가 높으면 열매 품질이 떨어지므로 환기를 통해 습도를 60

~70%로 조절해야 한다. 80% 이상이 되면 병해 발생이 심해 상품으로 판매되지 못하는 비상품과 비율이 높아지므로 주의한다.

농진청은 현재 망고 표준 재배력을 농가기술지도 자료로 활용 중이다. 앞으로 전국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 교육의 장을 마련해 보급·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김동환 소장은 "망고 시설재배를 위한 표준 재배력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망고 이외에 국내에서 재배되는 열대과수의 표준 재배력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망고를 재배 중인 한 농가는 "망고 재배를 처음 시도하면서 생육 단계에 따라 온도 관리와 주요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표준 재배력을 참고하면 주요 작업 내용을 한눈에 자세히 알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제공>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선정

경진원, 이달 말 참가기업 모집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A)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디지털 사회혁신(Digital Society Innovation, 이하 DSI) 생태계 조성 사업은 지역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 모두의 행복과 유익에 기반한 공익성 및 배려와 포용이 내재된 공동체성 등 디지털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DSI 구축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서울, 춘천, 전북 3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했다. 올해 전북에서는 전주대학교가 주관하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시혁신센터, 전

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지역 내 디지털 기술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DSI 전문가를 양성하는 집중교육과 DSI솔루션 지원,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양성된 전문가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지훈 원장은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혁신 사업·활동에 DSI를 접목해 지역사회 혁신역량을 키우고자 한다"며, "디지털 기반 사회혁신 활동을 추진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 공모는 7월 말 참가기업을 모집 예정이다. /김윤성 기자

육류 소비 잦은 계절,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전북농원, 내달 13일까지... 돼지고기 삼겹살 등이 대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성, 이하 '전북농원')이 1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육류 소비가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북지역 특별사법경찰관 18명을 투입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판매장, 갈비·삼겹살 등 구이용 전문음식점 등 축산물 다소비업체 위주로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와 유명제일점·맛집,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고 단속 품목은 모든 축산물이며 특히, 휴가철 소비가 급증하는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쇠고기 등심 등 구이용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는 현장에서 5분 내에 원산지 판별이 가능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는 국내산 돼지가 백신접종을 통해 돼지열병 항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농관원 시험연구소에 의해 개발됐다. 이는 돼지열병 항체 유·무 분석·판별하는 방법으로 2줄이면 국내산(항체 유), 1줄이면 외국산(항체 무)이다.

전북농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132곳을 적발해, 거짓 표시로 적발된 75개소는 형사구건

하고, 미표시로 적발된 57개소는 과태료 12만2천원을 부과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2건(전체의 16.7%)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건(10.8%), 쇠고기 10건(7.6%), 빵류 10건(7.6%)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농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서도 농산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윤성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